

	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		
회 의 명	제39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		
일 시	2022. 11. 7.(월) 16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
참석위원	김은상(의장), 서용원, 한상만, 전재욱, 김윤배, 박동희, 장필규, 최유선, 윤영선 평의원 / 김중환, 양경아, 전미희 평의원 위임장 제출 (이상 총 12명) ※ 이준영 기획조정처장, 최정훈 예산기획팀장, 조정훈 과장, 이새롭 직원 배석		
불참위원	-		

1. 개 회

- 김은상 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9명이 참석하고 3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, 제39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.
- 제39차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이 2022학년도 추경예산 편성(안) 자문 1건임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묵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약학대학이 6년제로 변경되어도 그대로 약학사가 수여됨을 확인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유급 시 특정 성적이 유지되는 현행 제도가 성적을 상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.

2. 성균관대학교 추경 예산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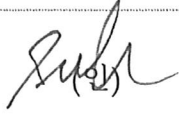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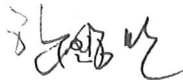
- 김은상 의장이 2022학년도 추경예산 편성(안)에 대한 자문사항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등록금 수입, 사학진흥재단 기숙사차입금 등의 수입부문 내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유한양행 기부금 실적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유한양행과의 협약에 따라 자연과학캠퍼스 건물 신축을 위한 기부금 총 500억 원 중 올해까지 300억 원을 충당하였으며, 잔여 200억 원은 앞으로 20년간 임대료로 인식할 예정이라고 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아임뉴런, 유한양행, 성균관대학교가 CNS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였고, 유한양행에서 선납 임대료와 기부금을 합쳐 500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 시공사 입찰 단계에 있다고 하다.
- 윤영선 평의원이 법인전입금수입 중 삼성장학금의 지급 대상과,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법인전입금수입이 증가하는지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삼성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일부 전문대학원 및 학부 우수 신입학생이라고 하다.
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삼성장학금의 지급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없으나, 혹시라도 학부 우수 신입학생의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 법인전입금 규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다.
- 윤영선 평의원이 교육부장학금 선발기준 및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교육부장학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하며, 약 소득 분위 8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 및 대학의 장학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본교의 장학정책이 성적장학금 위주에서 가계곤란, 학생경협장학금 등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본교의 장학금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본교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려면 전국대학 평균 이상의 장학금 지급률을 달성하여야 하며, 본교의 경우 추경 예산 상 학부 기준 약 21%의 교내장학금, 약 17%의 교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, 등록금 대비 약 38%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타대학 대비 본교 장학제도의 우위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장학통계 자료를 포함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 주길 요청하다.
- 최유선 평의원이 장학금이 의학과와 같은 특수학과에 집중되어 있어, 타학과의 수혜율은 높지 않아 일부 학과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자과캠 반도체학과의 경우 외부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인사캠 글로벌학과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일반적으로 신입학생의 성적이 우수한 학과의 경우, 삼성장학금과 같은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가 많아 장학금 수혜율이 높다고 하다.
- 최유선 평의원이 학생들이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장학금은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학생들에게 본교의 장학제도 및 장학금 규모가 우수한 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다.
- 김은상 평의원이 수지 조정(기금 인출)의 재원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2021학년도 결산 기준 760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, 이를 재원으로 수지를 조정하였다고 답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교원급여 및 직원급여 증가분과 외부강연에 따른 교육수익을 본교에서 수입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교원급여는 일반교원 인건비가 일부 증가하였고, 직원급여는 명예퇴직 및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등의 임시직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, 교육수익에 대해서는 확인 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다.

- 전재욱 평의원이 일반대학원 정원 부족으로 인한 정원 배분에 대해 첨예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업료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수업료 감소는 대학원의 상·하반기 충원비율 조정과 전년 대비 충원율이 소폭 하락한데에 기인한다고 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전년도에 석·박사 공히 100%에 가까운 충원율을 달성하였으며, 금년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충원하였다고 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대학원 정원 부족으로 많은 지원자가 탈락하였으나, 전년 대비 대학원 충원율은 하락한 부분에 대해, 학문단위에 정원의 잔여/부족 여부를 충실히 안내하여 주길 요청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학문단위에서 발생하는 신입생 선발 수요에 맞추어 미충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제언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우수 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액장학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금년도부터 우수대학원생장학금을 통해 일부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,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학교예산의 규모, 부속병원 회계의 포함 여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연구비 비중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학교예산은 약 5,900억 원, 산단예산은 약 4,500억 원 정도이며, 부속병원 회계는 미포함되고,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연구비는 학교 및 산단 총예산의 약 40% 수준이라고 하다.
- 박동희 평의원이 교육병원의 교육과 관련되는 급여는 병원회계를 재원으로 약 50~60% 정도를 학교가 부담하나, 진료와 관련되는 급여는 학교회계에서 제외된다고 부연하다. 아울러 교육병원과 부속병원의 회계 특성에 따라 대학간 교원급여의 규모가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유틸리티 비용, 건축비, 우리은행 기숙사차입금 상환 등의 지출부문내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본교와 타대학의 교원 및 직원급여, 연구비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교원급여는 타대학 대비 유사한 수준, 직원급여는 타대학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연구비의 경우 중앙일보 등 대학평가의 연구비 지표가 경쟁대학 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통신비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통신비는 캠퍼스간 망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학술정보관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감소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.
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과거 검토한 적이 있으며, 김윤배 평의원이 건물하중 등의 문제로 설치가 보류되었다고 하다.
- 서용원 평의원이 난방비와 통신비가 유사한 규모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캠퍼스 이원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통신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, 난방비는 산단회계에서 50%를 부담하기에 학교회계에는 50%만 포함되어 있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연구비 지출이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기간이 경과한 오래된 연구과제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였다고 하다.
- 장필규 평의원이 투자와기타자산지출항목 중 예금이자 및 분석료 적립 증가분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예금이자 증가분에 대한 과실금 적립분이며, 연구소의 분석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재투자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본교의 발전기금 적립 규모 및 타대학의 수준에 대해 질의하다.
-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 본교의 발전기금 적립 규모는 약 3,000억 원 수준이며, 타대학의 규모를 확인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 자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윤영선 평의원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, THE, QS 등 대학평가의 향상하는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다.
-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대학평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, 특히 탁월한 피인용을 중심으로 평판도를 향상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다.
- 윤영선 평의원이 해외로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있어 학교의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, 논문의 양과 질을 향상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길 요청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15주로 강의주차를 축소함에 따라,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어, 학기중에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별도의 휴업주간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하다.
- 최유선 평의원이 대학 차원에서 공휴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다.
- 김윤배 평의원이 테니스장이 관리 등을 사유로 주말 등의 시간대에 개방되지 않고 있어, 적절한 관리 하에 개방하여 주길 요청하다.
- 최유선 평의원이 학교의 시설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대강당, 테니스장 등의 공간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18:0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제3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. 끝.

서용원		한상만		전재욱	
김윤배		김은상			
박동희		김중환	<위임>		
양경아	<위임>	장필규		최유선	
전미희	<위임>	윤영선			